

- ① 의인화 기법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찬미하고 있다.
- ② 소외된 존재의 슬픔이 시상의 거점을 이루고 있다.
- ③ 유사한 종결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 ④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①

[정답 풀이]

이 시는 '슬픔'을 '나'로 '기쁨'을 '너'로 설정하여 추상적인 개념인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 자연의 가치를 찬미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②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을 통해 소외된 존재의 슬픔이 시상의 거점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주겠다, 멈추겠다, 걸겠다, 걸어가겠다" 등에 나타나는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따라서 유사한 종결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나는 ~ 너에게 ~ 겠다"를 통해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더 알아보기]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이 시는 '슬픔'과 '기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어 이기적인 존재로 형상화된 현대인의 모습과 삶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작품이다. '슬픔'의 모습은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알며, '기쁨'도 포용하는 긍정적인 존재로 나타나는데, 이에 비해 '기쁨'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문 4.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행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노키즈 존(No Kids Zone)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대학교 홍○○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노키즈 존이 정확하게 뭔가요?

홍 교수: 사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특정 연령 이하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진행자: 공공 목적을 가진 곳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상업 시설에서도 그런가요?

홍 교수: 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도 해당됩니다.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나 불만으로 인해 전체 매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진행자: 아, 어린이 동반 손님을 받다 보면 오히려 다른 손님들을 더 많이 못 받을 수 있죠?

홍 교수: 네. 아무래도 경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겠죠.

진행자: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겠지만 언뜻 특정인들을 위한 전용 버스 운행과 같이 또 다른 차별의 예를 떠올리게 하네요.

홍 교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가 시장주의 위주로 성장해 오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같은 부분은 깊이 생각해 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물론 특정 집단의 차별에 대해 일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경험했던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① 상대방의 발언에 적극 동조하며 다음 인터뷰를 기약한다.
- ② 예상되는 반론 가능성을 차단하며 자기의 주장을 관철한다.
- ③ 사례를 언급하며 상대방이 생각을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④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정답 ③

[정답 풀이]

진행자는 "특정인들을 위한 전용 버스 운행과 같이 또 다른 차별의 예를 떠올리게 하네요."라고 하여 새로운 사례를 언급하였다. 이는 홍 교수의 발언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같은 부분은 깊이 생각해 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라는 진술을 이끌어 내었으므로, ③은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진행자는 상대방의 발언에 적극 동조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답변을 유도하는 말하기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인터뷰를 기약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다.
- ② 예상되는 반론 가능성을 차단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상대방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환기시킨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문 5.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모든 한자 사용을 없애고자 한 의도였다.
- ② 우리는 균형 있는 식단 마련과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 ③ 우리 팀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관중이 동원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 방안을 고려해 왔다.
- ④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복지 정책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답 ③

[정답 풀이]

'가능한'은 형용사 '가능하다'의 관형사형으로 뒤에 명사나 의존 명사가 온다는 특징이 있다. '한(限)'의 품사는 명사인데, 주로 '는 한' 구성으로 쓰여 '조건'의 뜻을 나타낸다. 이 문장에서 형용사 '가능한'은 명사 '한(限)'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③은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은 '중의성'과 '주술 호응 관계'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먼저 중의성 측면에서 문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한자 사용'에서 '모든'이 수식하는 범위가 '한자'인지 '사용'인지가 불분명하여 문장의 의미가 모호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장 성분의 위치를 바꾸거나 불필요한 성분을 삭제하면 된다. 다음으로 '주술 호응 관계' 측면에서 문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어 '~ 것은'과 호응하는 서술어 '~ 것이다'가 누락되어서 주술 호응이 되지 않는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에 해당하는 것이 '한자 사용을 없애고자 한 의도'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무엇이 무엇이다' 짜임에 맞게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과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는 것이다'가 호응하도록 문장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한자 사용을 없애고자 한 의도였다]는 것이다
- ②는 문법상 대등 구조에 어긋난 문장이다. '균형 있는 식단 마련'과 '쾌적한 실내 분위기'가 서술어 '조성하다'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있지만 '균형 있는 식단 마련'을 '조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균형 있는 식단을 마련하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다' 정도로 고쳐야 바르다.
- ④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생략된 주어 '우리가'를 상정하면, '우리가'와 '살펴보다'는 적절하지만, '우리가'와 '일어나고 있다'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뒤에 쓰인 문장의 서술어를 앞의 문장 주어에 맞게 고쳐 써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복지 정책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문 6.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그 길을 걸어 온 사람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 ② 대책 없이 쓸 데 없는 일만 골라 하니 저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 ③ 이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없었다.
- ④ 예기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바 재발 방지책을 찾아야 한다.

정답 ④

[정답 풀이]

• 있었던바(○): '있었던바'에 쓰인 'ㄴ바'는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 것은 바르다. 어미 'ㄴ바'는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와 같이,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거나, '너의 죄가 큰바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와 같이,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할

때 쓰인다. 한편, 의존 명사 ‘바’는 ‘이왕 산 중턱까지 온 바에 꼭대기까지 올라감 시다./어차피 매를 맞을 바에는 먼저 맞겠다.’와 같이 주로 ‘-은/는/을 바에(는)’ 구 성으로 쓰이며, 앞말이 나타내는 일의 기회나 그리된 형편의 뜻을 나타낸다.

• 찾아야한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찾아야’는 어 간 ‘찾-’에 어미 ‘-아야’가 결합된 구성이므로 ‘찾아야한다’와 같이 앞말과 띄어 쓴 것은 바르다. 한편,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이거나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 조 용언의 경우에 한한다.

[오답 풀이]

① • 걸어온(×) ⇨ 걸어온(○): ‘목적지를 향하여 발로 걸어서 이동하여 오다./ 목적지에 이르기 위하여 어떤 길을 지나오다./지내 오거나 발전하여 오다’의 뜻을 가진 ‘걸어오다’는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모든 음절을 붙여 써야 한 다.

• 참여하는데(×) ⇨ 참여하는(○): ‘데’는 ‘곳’이나 ‘장소’, ‘일’이나 ‘것’,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일 때 앞말과 띄어 쓰고, 어미일 때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 문장에서 ‘데’는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② • 쓸데없는(×) ⇨ 쓸데없다(○): 이 문장에 쓰인 ‘쓸데없다’는 ‘아무런 쓸모 나 득이 될 것이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한 단어이다. 따라서 모든 음절 을 붙여 써야 한다. 한편, ‘중이에 글씨를 쓸 곳이 없다’와 같은 문맥에서는 동사 ‘쓰다’, 의존 명사 ‘데’, 형용사 ‘없다’를 쓰므로, ‘중이에 글씨를 쓸 데가 없다’와 같 이 띄어 적는다.

• 골라하니(○): ‘고르다’와 ‘하다’는 각각 하나의 단어이며, 본용언과 본용언으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문장에서 앞말과 띄어 쓴 것은 바르다.

③ • 하는지(×) ⇨ 하는지(○): ‘하는지’에 쓰인 ‘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어미 ‘-는지’의 일부이 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한편,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 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알아볼(○): ‘알아보다’는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된 합성어이다. ‘알아볼’과 같이 붙여 쓴 것은 바르다.

문 7.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나는 우리 회사의 장래를 너에게 걸었다.

- ① 이 작가는 이번 작품에 생애를 걸었다.
- ②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에 승부를 걸었다.
- ③ 마지막 전투에 주저 없이 목숨을 걸었다.
- ④ 그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걸었다.

정답 ②

[정답 풀이]

“나는 우리 회사의 장래를 너에게 걸었다.”에서 ‘걸다’의 문맥적 의미는 ‘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 따위를 품거나 기대하다.’이다. 이와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②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에 승부를 걸었다.”에 쓰인 ‘걸다’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④에 쓰인 ‘걸다’는 “목숨, 명예 따위를 담보로 삼거나 희생할 각오를 하 다.”라는 뜻을 가진다.

✦ [더 알아보기] ‘걸다’의 다의어

1. 돈 따위를 계약이나 내기의 담보로 삼다. ㉠ 노름에 돈을 걸다.
2. 의논이나 토의의 대상으로 삼다. ㉡ 그는 부당 해고라고 회사에 소송을 걸었다.
3. 어떤 상태에 빠지도록 하다. ㉢ 그는 관객들에게 최면을 걸어 모두 잠들게 했다.
4. 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 따위를 품거나 기대하다. ㉣ 첨단 산업에 승부를 걸다
5. 목숨, 명예 따위를 담보로 삼거나 희생할 각오를 하다. ㉤ 그에게 운명을 걸다
6. 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어떤 행동을 하다. ㉥ 여자에게 말을 걸다
7. 전화를 하다. ㉦ 회사에 전화를 걸다
8. 긴급하게 명령하거나 요청하다. ㉧ 소대원들에게 비상을 걸었다.
9. 다리나 발 또는 도구 따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동작을 하다. ㉨ 그는 지나가는 친구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문 8.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한국어의 피동 표현 중 ‘-어/아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것 은 연결어미 ‘-어/아’에 보조 동사 ‘지다’가 결합된 통사적 구성으 로 통사적 피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어/아지다’가 피동의 의미보다는 ‘-게 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져 어떠한 어떠한 상태로 된다는 과정화의 의미가 더 강할 때가 있다.

- ① 이 책이 잘 읽혀진다. ② 방에 우유가 쏟아졌다.
- ③ 그 가게에 잘 가지지 않아요. ④ 이 연필은 글씨가 잘 써진다.

정답 ③

[정답 풀이]

‘피동’은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성질을 말한다. “그 가게에 잘 가지지 않아요.”에서 ‘가지다’는 ‘가다’와 보조 동사 ‘지다’가 연결 어미 ‘-아’로 결합된 통사 적 구성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남의 힘에 의하여 움직이다’는 의미보다는 ‘어 떠한 상태로 되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문맥상 ‘가게 되다’로 바꿀 수 있어서 ‘과 정화’의 의미가 나타나는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읽히어지다’는 ‘읽다’의 어간 ‘읽-’에 피동접사 ‘-히-’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구성이다. ‘읽히다’로 고쳐야 바르다.

② ‘쏟아지다’는 본동사 ‘쏟다’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지다’가 연결 어 미 ‘-아’로 이어진 통사적 피동에 해당한다.

④ ‘써지다’는 사전에서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긋는 도구로 획이 그어지다’를 뜻하고, ‘쓰다’의 어간에 연결 어미 ‘-어’와 보조 동사 ‘지다’가 차례로 결합한 통사 적 피동에 해당한다.

문 9. ㉠에 해당하는 것과 ㉡에 해당하는 것을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짝지 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 집에 당장 쓰러져 가는 행랑채가 세 칸이나 되어 할 수 없이 전부 수리하였다. 그중 두 칸은 이전 장마에 비가 새면서 기울어진 지 오래된 것을 알고도 이리저리 미루고 수리하지 못한 것이고 한 칸은 한 번 비가 새자 곧 기와를 바꿨던 것이다. 이번 수리할 때에 기울어진 지 오래였던 두 칸은 들보와 서까래들이 다 썩어서 다시 쓰지 못하게 되어 수리하는 비용도 더 들었으나, 비가 한 번 새었 던 한 칸은 재목이 다 성하여 다시 썼기 때문에 비용도 덜 들었다. 나는 ㉠ 이 경험을 통해 ㉡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것은 사람에 게도 있는 일이다. 자기 과오를 알고 곧 고치지 않으면 나무가 썩 어서 다시 쓰지 못하는 것과 같고, 과오를 알고 고치기를 서슴지 않으면 다시 착한 사람이 되기 어렵지 않으니 집 재목을 다시 쓰는 이로움과 같은 것이다. 다만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심하여도 그럭저 력 지내고 고치지 않다가 백성이 떠나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 뒤 에는 갑자기 고치려고 해도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

㉠

㉡

- | | |
|-----------------|------------------|
| ① 기와를 바꾸다 | 과오를 고치다 |
| ② 미루고 수리하지 않다 | 과오를 알고도 곧 고치지 않다 |
| ③ 들보와 서까래가 다 썩다 | 나라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 |
| ④ 비가 새서 기울어진 상태 | 자기 과오 |

정답 ③

[정답 풀이]

㉠ ‘이 경험’은 제시문의 세 번째 문장 “기울어진 지 오래였던 두 칸은 들보와 서까 래들이 다 썩어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는 것은 ㉡ ‘깨달음’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했지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기와를 바꾸다’는 것은 두 번째 문장에서, ‘과오를 고친다’는 것은 여섯 번째 문장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미루고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번째 문장에서, ‘과오를 알고도 곧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여섯 번째 문장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④ ‘비가 새서 기울어진 상태’가 된 것은 세 번째 문장에서, ‘자기 과오’는 여섯 번 째 문장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더 알아보기] 이규보, 이옥설

‘이옥설’은 퇴락한 행랑채를 수리하는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삶과 정치 현 실에 적용한 교훈적 수필이다. 대상을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상반된 집수리의 경험을 통해, 잘못을 알고도 수리하지 않았을 때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설득력 있게 말하 고 있다. 대상이 가진 의미를 유추하는 과정에서는 집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잘못된 버릇, 습관도 바로 고쳐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문1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약용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들의 절용(節用), 즉 아껴 쓰기를 강조했다. 다산이 말한 절용은 듣기에는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자기 돈은 절용하기 쉽지만 정부 돈은 함부로 쓰기 십상이다. 또한 정책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절용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내가 오랫동안 귀양 살면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 줄 재산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글자 두 자를 유산으로 남겨 준다. 하나는 근(勤)이요, 하나는 검(儉)이다. 너희가 근검 두 글자를 제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논 100마지기 200마지기보다 좋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고 자애로운 것이야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니, 다산은 백성을 통치하려면 먼저 절용에 힘쓰라고 말한 것이다. 다산이 말한 청심(淸心)은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공직자의 기본이다.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해서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다산은 청렴이 천하의 큰 장사라 말했다.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남는 일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청렴한 사람이 진짜 욕심쟁이라고 했다.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려는 공직자는 청렴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다산은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이유를 지혜가 모자란 데서 찾았다. 다산의 청렴 사상은 ‘청렴한 사람은 청렴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廉者安廉 知者利廉)는 말로 요약된다. 공자는 목표가 인(仁)인 반면 다산은 목표가 청렴이었다. 인은 너무 높은 성현의 이야기이므로 일반인이 인의 경지에 이르기 힘들니 한 단계 낮추어 청렴을 이야기한 것이다.

- ① 공직자들은 금품과 선물을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주고받아야 한다.
- ② 관리들이 청렴하고 자애로우면 백성들이 인을 이룰 수 있게 된다.
- ③ 자손에게 물질적 재산을 남겨 주는 공직자는 청렴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지혜로운 관리는 청렴함을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풀이]

제시문에서 ‘청렴’이 언급된 문장 중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남는 일”에서 ‘이익’을, “공직자는 청렴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에서 ‘공직자의 목표 달성’을,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지혜로운 관리는 청렴함을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진술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제시문에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해서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공직자들이 금품과 선물을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주고받아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제시문에서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고 자애로운 것이야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을 뿐 관리들이 청렴하고 자애로우면 백성들이 인을 이룰 수 있게 되는지의 여부는 나와 있지 않다.
- ③ 제시문에서 다산은 아들에게 근(勤), 검(儉) 두 글자를 유산으로 남겨 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자손에게 물질적 재산을 남겨 주는 공직자는 청렴하지 않다는 추론의 근거는 될 수 없다.

문14.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췌췌 常 평홀 平 통홀 通 보뵈 寶字
구멍은 네모지고 四面이 둥그러서 췌딕글 구으려 간 곳마다 반기는고나
엇더타 죠고만 金鈔각을 두창이 닳토거니 나는 아니 죠해라

- ① 조선 후기의 첨예한 신분 갈등이 제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제재와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제재에 대한 일반적 반응과 시적 화자의 반응이 대조되고 있다.
- ④ 화자의 심화된 내적 갈등을 보여 주기 위해 대립적 성격의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정답 ③

[정답 풀이]

이 글의 제재는 ‘상평통보’이다. 초장의 “췌췌 常 평홀 平 통홀 通 보뵈 寶”은 상평통보의 한자를 새김으로 말한 것이다. 중장의 “구멍은 네모지고 四面이 둥그러서”는 엽전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다. 종장의 “金鈔각”은 쇠조각을 이르는 것이며, “두창이 닳토거니”는 두창(頭瘡, 머리에 나는 부스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날 만큼 닳은다는 것으로 박이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평통보’를 사람들은 반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화자는 “나는 아니 죠해라”라고 하여 엽전의 위상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재에 대한 일반적 반응과 시적 화자의 반응이 대조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상평통보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과 화자의 반응이 대조되고 있을 뿐 조선 후기의 첨예한 신분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 ② 제재를 의인화하지 않았고, 대화하는 형식이라기보다는 독백에 가까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화자의 내적 갈등은 이 작품에 나타나지 않았고 ‘상평통보’라는 하나의 소재를 활용하였을 뿐 대립적 성격의 소재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 [더 알아두기] 현대어 풀이

췌췌할 상 평할 평 통할 통 보배 보의 네 글자가 들어 있는 엽전이 있다./이 엽전의 구멍은 네모지고 둘레는 둥글게 되어 있어 땀때굴 굴러 간 곳마다 사람들이 반기는구나./어찌하여 조그만 쇠조각을 놓고 박이 터지게 다투는 것인가. 나는 그를 보면 좋지 아니하다.

문15. ㉠ ~ ㉣ 중 한자의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프레젠테이션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陳述하는 말하기를 가리킨다. 프레젠테이션은 조사한 내용을 ㉡說明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고하는 등 정보 공유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널리 ㉢使用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핵심적인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制視하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정답 풀이]

- ㉠ 陳述(베풀 진, 펠 술)(○):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법률·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 상황이나 사실에 관한 지식을 보고하고 알리는 일. 또는 그런 소송 행위./법률·형사 소송에서, 당사자·증인·감정인이 관계 사항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알리는 일.
- ㉡ 使用(부릴 사, 쓸 용)(○):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사람을 다루어 이용함. ‘부림’, ‘씀’으로 순화.

[오답 풀이]

- ㉢ 설명(設: 베풀 설, 明: 밝을 명)(×) ⇨ 說明(말씀 설, 밝을 명)(○):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
- ㉣ 제시(制: 절제할 제, 視: 볼 시)(×) ⇨ 提示(꿀 제, 보일 시)(○):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검사나 검열 따위를 위하여 물품을 내어 보임./교육·오단(五段) 교수법에서, 새로운 교재를 아동에게 보이는 두 번째 단계.

문 16. 밑줄 친 부분을 고유어로 바꿀 때 적절한 것은?

- 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바라는
- ② 우리는 연 3%의 연체 이자를 납부합니다. → 에누리
- ③ 부서의 현재 상황을 상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헤아려
- ④ 오늘 경기가 취소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알려 주시기

정답 ①

[정답 풀이]

‘소기(所期)’는 ((주로 ‘소기의’ 꼴로 쓰여)) “기대한 바”라는 뜻을 가진 어휘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다/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다’ 등의 문장에 쓰인다.

[오답 풀이]

- ② ‘이자(利子)’는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이며 같은 뜻을 가진 고유어로 ‘길미’가 있다. 한편, ‘에누리’는 ‘물건값을 받을 값보다 더 많이 부르는 일./값을 깎는 일./실제보다 더 보태거나 깎아서 말하는 일./용서하거나 사정을 보여주는 일.’을 뜻하는 어휘이다.

- ③ ‘상신(上申)’은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함’을 뜻하는 어휘이다. ‘알림’, ‘여쭙’으로 순화하였다.
④ ‘양지(諒知)’는 ‘살피어 앎’을 뜻하는 말이다.

문17.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내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일이지는 하지만, 저 혹독한 6·25의 경험 속의 공포의 전깃불(다른 곳에서 그것에 대해 쓴 일이 있다), 그 비정한 전깃불빛 앞에 나는 도대체 어떤 변신이나 사라짐이 가능했을 것인가. 앞에 선 사람의 정체를 감춘 채 전깃불은 일방적으로 ‘너는 누구 편이냐’고 운명을 판가름할 대담을 강요한다. 그 앞에선 물론 어떤 변신도 사라짐도 불가능하다. 대답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대답이 빗나간 편을 잘못 맞았을 땐 그 당장에 제 목숨이 달아난다. 불빛 뒤의 상대방이 어느 편인지를 알면 대답은 간단하다. 그러나 이쪽에선 그것을 알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없으므로 상대방을 기준으로 안전한 대답을 선택할 수가 없다. 길은 다만 한 가지. 그 대답은 자기 자신의 진실을 근거로 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제 목숨을 건 자기 진실의 드러냄인 것이다. 그 밖의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 이청준, 「전깃불 앞의 방백」 -

(나) 한데 요즘 나는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은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실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가장 성실한 작가의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말이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 이청준, 「소문의 벽」 -

- ① (나)와 달리 (가)는, 경험에서 파생된 상징적 장치를 적용하여 사태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② (가)와 달리 (나)는, 이념적 대립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하는 인물의 고통을 낱말로 진술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상호적 소통의 여지가 가로막힌 상황의 공포를 다룸으로써 유사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고립된 채 두려움에 떠는 인물의 행동을 극화함으로써 공통된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③

[정답 풀이]

(가)에서는 “저 혹독한 6·25의 경험 속의 공포의 전깃불”과 “전깃불은 일방적으로 ~ 대답을 강요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소통의 여지가 없는 상황의 공포를 나타내고 있고, (나)에서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실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와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부분을 통해, 소통의 여지가 없는 상황의 공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가 ‘소통의 여지가 없는 상황의 공포’를 다룸으로써 유사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 모두 경험에서 파생된 상징적 장치, 즉 전깃불을 적용하여 사태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② (나)보다는 (가)가 이념적 대립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하는 인물의 고통을 더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④ (가)의 제목에서 ‘방백’이라는 단어만 제시되었을 뿐 (가)와 (나) 모두 인물의 행동을 극화하지는 않았다. 둘 다 산문적 진술로 이루어진 소설에 해당한다.

★ [더 알아두기]

(가) 이청준, 「전깃불 앞의 방백」

이 소설은 가까운 사람들의 경조사도 챙기지 않거나 때때로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까맣게 잊는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투쟁 구호를 외치는 학생과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 사이에서 설 자리를 차지 못하고 곤욕을 치른 A고수의 이야기, 6. 25 당시 가족을 잃은 충격에 사람들을 멀리하는 외종형의 이야기, 일 년 동안 혼신을 다해 연습한 피아노 연주를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앞에서 마치 연주회의 연주자처럼 정성껏 연주한 중학교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개성적 삶과 사회적 삶의 총체적 조화가 소설의 길임을 말하고 있다.

(나) 이청준, 소문의 벽

박준은 억압된 현실 상황과 작가의 사명 의식 사이에서 절망하는 인물로, 정신적 병리 현상을 겪고 있는 인물이다. 6. 25 전쟁 당시 억압적인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공포감을 ‘전깃불’의 충격으로 인해 느끼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공포감은 그가 소설가가 된 뒤에도 자기 진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적 공포감과 연결되어 더 이상 소설을 쓰지 못하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박준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사회적 편견과 억압으로 이루어진 ‘소문의 벽’에 대한 공포를 고발하면서, 억압당하는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문18.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들은 특정 소리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휘 목록 속에서 어떻게 의도된 단어에 접속하여 그 의미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일까? 즉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와 다른 모든 단어들이 구별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어떻게 해당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마슬렌-윌슨(Marslen-Wilson)은 어떤 단어를 듣고 인식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실험을 통해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어야 비로소 어떤 단어가 인식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slander’는 /d/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며,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slant’와 구별되지 않는다. 여기서 청각 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의 해당 항목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금고를 열기 위한 숫자 조합의 원리와 유사하다. 숫자 조합 자물쇠의 회전판을 올바른 순서로 회전시킬 때, 모든 숫자를 끝까지 회전시키지 않고도 맞아떨어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소리 연속체를 요구하는 신경 회로들은 진행 중인(하지만 아직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소리의 연속체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slan/은 ‘slander’와 ‘slant’에 관련되는 신경 회로들 전부를 활성화할 것이다.

- ①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에, 청각 체계로 들어온 음성 신호가 접속하여 의미가 활성화된다.
② ‘slander’와 ‘slant’의 의미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발음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③ 어떤 단어를 머릿속 어휘 목록에서 선택하여 발화하는 과정은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④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 회로는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

정답 ①

[정답 풀이]

여섯 번째 문장 “청각 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의 해당 항목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를 근거로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에, 청각 체계로 들어온 음성 신호가 접속하여 의미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slander’의 /d/까지 들었을 때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확실하게 구별된다고 하였으므로, ‘slander’와 ‘slant’의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각 단어의 발음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발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청각 체계의 해당 항목에 접속하는 과정’이다.
④ “끝까지 회전시키지 않고도 맞아떨어질 수 있다”와 “진행 중인 소리의 연속체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다.”를 통해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 회로는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되기 전에도 활성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19.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千世 우회 미리 定한 漢水 北에 ㉠累仁開國한사 卜年이 2 업스시니 聖神이 니스샤도 ㉡敬天勤民한사아 더욱 구드시리이다
㉢ 넘금하 ㉣ 아르쇼셔 洛水에 山行 가 이서 하나빌 미드니잇가

- ① ㉠에서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된 형태로, 현대국어의 ‘-시어’에 대응된다.
- ② ㉡에서 ‘-샤’는 선행하는 활용형과 결합하여 그 뜻을 강조하는 조사로, 현대국어의 ‘-서’에 대응된다.
- ③ ㉢에서 ‘-하’는 높임을 받는 대상에 쓰는 호격 조사로, 현대국어의 ‘-이시여’에 대응된다.
- ④ ㉣에서 ‘-쇼셔’는 청자를 높여 주며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현대국어의 ‘-십시오’에 대응된다.

정답 ②

[정답 풀이]

‘敬天勤民 호샤샤’에 쓰인 ‘호샤샤’는 ‘호다’의 어간 ‘호-’에 어미 ‘샤샤’가 결합한 형태이다. 현대어로 풀이하면 ‘하시어야’가 된다. ‘샤샤’는 옛말에서 받침 없는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쓰이는 어미로 현대국어의 ‘-시어야’에 해당한다. 따라서 ‘샤’가 현대국어의 ‘-서’에 대응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샤’는 옛말에서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쓰이는 어미로 현대국어의 ‘-시어’에 대응된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진술이다.
- ③ ‘하’는 옛말에서 존칭 체언류에 붙어 쓰이는 호격 조사로 현대국어의 ‘시여/이시여’에 대응된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진술이다.
- ④ ‘쇼셔’는 옛말에서 호쇼셔할 자리에 쓰여,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현대국어의 ‘-십시오’에 대응된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진술이다.

✦ [더 알아두기]

•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는 서사, 본사, 결사로 구성된 악장이다. 서사에서는 중국 사적과의 일치를 통해 조선 건국의 천명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대구의 형식을 통해 앞 절에서는 중국 사적을, 뒷 절에서는 조선 6조(祖)의 사적을 배열하고 있다. 결사에서는 위정자로서 ‘경천근민’해야 하는 자세를 당부하고 있다.

• 현대어 풀이

천 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 땅에, (육조께서) 여러 대를 걸쳐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 점지해 받은 운수가 끝이 없으시니, 성군의 자손이 대를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부지런히 힘쓰시어(왕권이)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이니시여, 아십시오. 낙수에 사냥하러 가 있으면서 조상만 믿으시겠습니까?

문2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인간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 믿음의 체계는 허구를 기초로 해서라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의 체계와 구별된다. 물론 이 말은 스스로 허구라고 믿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허구임을 인정했더라면 이는 그 사람의 의식 공간에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식 공간에서 구성된 사실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믿음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를 구성해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사실임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의 의식 공간에서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지식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이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인지 아니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된 지식인지 구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식 세계는 저러한 두 가지 체계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뒤엉켜 있다. 그러므로 의식 세계에서 사실의 체계와 믿음의 체계를 확실하게 구분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 ① 믿음의 체계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인간의 의식 공간에 구성한 것이다.
- ② 어떤 이가 믿음의 체계에 포함시킨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그가 사실로 수긍한 것이다.

- ③ 검증된 지식과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변별이 인간의 의식 세계에서 명확하지 않다.
- ④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풀이]

제시문의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인간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 믿음의 체계는 허구를 기초로 해서라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의 체계와 구별된다.”를 통해 허구를 기초로 해서라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체계’이지 ‘사실의 체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의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인간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를 근거로 알 수 있다.
- ② 1문단의 “믿음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를 근거로 알 수 있다.
- ③ 2문단의 “의식 세계에서 사실의 체계와 믿음의 체계를 확실하게 구분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를 근거로 알 수 있다.

전격입성

합격의 마법을 보여줄까요 정채영 국어

기본이론
종합반 과정

9월 4일 개강

화 11:00~13:00 (2개월완성)
수 09:00~13:00

교재 : 2019 정채영 국어 (박문각판)
공지 : 종합반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심화이론
단과반 과정

9월 5일 개강

수 목 일 (2개월완성)
14:00~18:00

교재 : 2019 정채영 국어 (박문각판)

기본 개념부터 어려워하는
개념까지 체계적으로 정리

- 신규입성 50% 할인 -

※ 2018년 8월 18일, 9월 8일 설명회 참석시
추첨을 통해 정채영 교수님 무료 수강권 증정!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노량진남부교사학원 02815-7819, 3280-9990 온라인 023489-9500